

동물병원 표준운영안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동향



이 학 범
데일리벳 발행인
dvmlee@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동반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은필)가 '동물병원 표준운영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진료시간과 진료예약제를 권장하여 병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수의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 1시간, 휴일 및 오후 7시 이후에는 야간응급진료비 적용 등의 표준진료시간, 30분 단위 진료예약제 실시 같은 표준운영안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표준진료시간은 이미 여러 수의사회 지부/분회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광주광역시수의사회 표준진료시간 권고안

광주광역시수의사회는 수 년 전부터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5시 마감과 일요일 휴무, 점심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의 내원객에 대한 할증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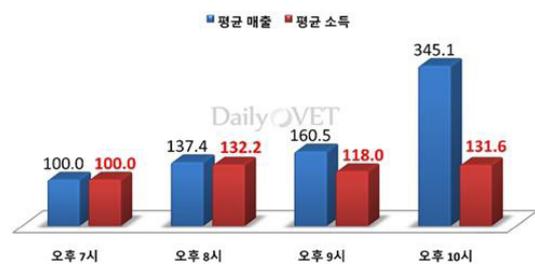
성남시 수의사회 역시 2010년 말부터 평일 8시, 토요일 6시, 일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시간의 내원객에 대한 할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수의사회도 2014년 1월 1일부터 정규진료시간 및 시간외 할증 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7~8년 전 표준진료시간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서울시수의사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다시 표준진료시간 도입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800여개 서울시내 동물병원 중 67%에 해당하는 534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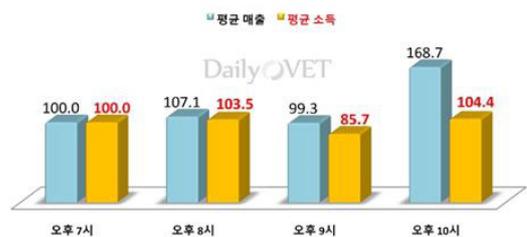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오후 8시에 진료를 마감하는 병원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9시 마감(22%), 10시 마감(13%), 24시간(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병원의 절반 이상인 56%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원하는 표준진료시간은 '오후 7시 마감'이 51%로 가장 높았다.

병원 마감시간에 따른 매출 및 소득 상대값



설문조사 결과 병원 운영시간과 소득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자료 : 서울시수의사회 경영활성화위원회 설문조사)

1~2인 병원, 마감시간에 따른 매출 및 소득 상대값



1~2인 동물병원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운영시간과 소득이 관계없다는 점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자료 : 서울시수의사회 경영활성화위원회 설문조사)

그 보다 약 세달 전 서수 경영활성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문을 밤 8시에 닫든 10시에 닫는 평균 소득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동물병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평균소득을 보인 경우는 '오후 8시 마감 병원'이었다. 10시 마감의 경우 매출은 8시 마감 병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실제 소득은 그대로였다. 밤 진료시간을 늘리면서 증가하는 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수익률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시 서울시수의사회 관계자는 "근무시간과 수익은 상관관계가 없었다"며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굳이 동물병원을 늦게까지 열고 출혈성 경쟁을 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광주, 성남, 인천,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표준진료시간 도입을 추진/시행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도가 잘 시행되는 곳도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곳도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간단하다. 바로 참여율의 차이다.

표준운영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모든 병원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권장사항/자율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수의사회에서 표준운영안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면 이는 공정거래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와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다만, 회원들이 찬성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진료시간제도가 잘 운영되는 지역의 한 원장은 회원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원끼리 잘 단합하고 자주 소통하여야 수의사회의 권장사항도 잘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표준진료시간이 잘 지켜지던 지역에서 진료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늘어나고, 이들 병원이 상대적인 이익을 보

는데도 진료시간을 어기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진 경우가 있다. '서로가 함께 지킨다'는 신뢰관계 없이는 표준운영안이 정착될 수 없다.

지난해 서울시수의사회 설문조사 당시 수의사들은 "임상수 의사도 진정한 전문직답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준수하면 더 좋은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태까지 바보같이 불쌍하게 살았다. 꼭 표준진료시간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도적이나 강압적인 압력 없이는 절대로 평준화 되지 않을 것이다", "이탈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대형 병원들의 상생을 위한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표준진료시간을 지키면서 동시에 진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의 정해진 진료시간과 예약제에 적응 한다"며 "동물병원은 예약제를 통해 진료 없이 마냥 기다리는 비효율적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미리 진료를 준비하여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표준진료시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처음 시행이 어렵겠지만 표준운영안 도입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표준운영안 도입과 수의사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표준운영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수의사들 때문에 잘 지키는 수의사들의 상대적 손해와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제도 정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표준운영안 도입 추진과 함께 표준운영안 도입 시 얻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동반성장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중이며, 해법을 찾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병원 표준운영안과 함께 우리나라 모든 임상수의사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 🍷